

수도권 매립지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

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온실가스 100만9657CO₂톤을 감축했다고 7월10일 발표했다.

연간 1만3000km를 운행하는 자동차 43만대가 배출하는 양으로, 유엔(UN)의 최종심의를 거쳐 10월경 탄소배출권이 발급될 예정이다.

탄소배출권을 현재 시세(CO₂톤당 10유로로 유로당 1500원)로 거래하면 약 1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년 4-11월 감축한 온실가스를 토대로 1차분 탄소배출권(39만4672CO₂톤)을 발급받은 바 있다.

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년간 총 700만CO₂톤, 1050억원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11/07/11>